

# 돼지가 좋아 평생 양돈인이기를 희망하는 영정양돈 이영정 사장



▲2세 양돈인 영정양돈 이영정 사장(31세)

**최** 근의 우리 나라 경기상황을 보면 언제 IMF 시대였느냐는 등 가계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금금리가 IMF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돌아왔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도 안정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주가는 한풀은 꺾었지만 지속적인 강세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언제 IMF를 졸업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와 많은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 같아 걱

정된다. 앞으로는 IMF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들 한다. 어느 전문잡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IMF 이전의 국민들중 약 70% 이상이 본인들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IMF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거품이 빠지면서 가장 급속도로 몰락한 계층이 바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분류했던 이들 계층이라고 한다. 즉 걸만 반지르했던 중산층들은

그 자체가 거품경제의 산물이라고 보아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예전에 유행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요즘에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욱 치켜세우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즉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지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배짱이처럼 평소에는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즐기지만 배짱이 두둑하여 한 건 크게 한다는 배짱이가 더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사회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한탕주의 의식이 팽배해 복권을 사는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만 보아도 요즘 시대의 세태를 잘 반영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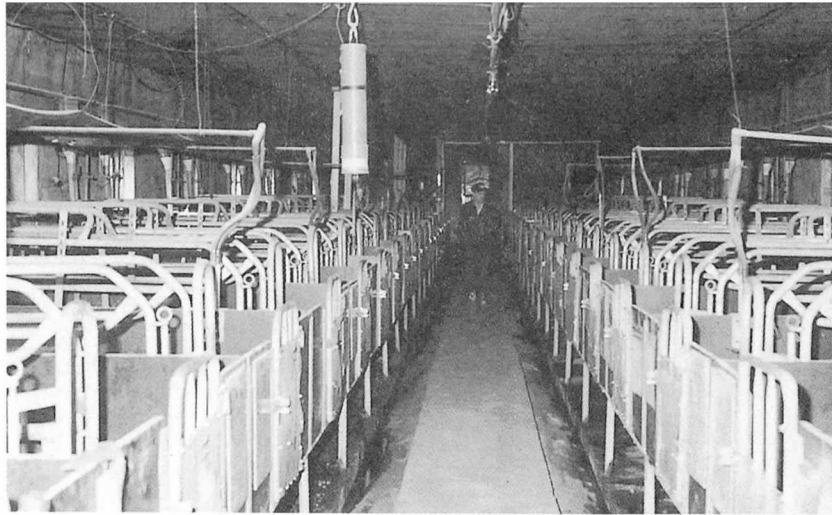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견주의식 생활은 그 삶에 충실하지 못할 뿐더러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황폐해 진다는 것이다. 물론 일약 천금의 행운은 개중에 흔치 않은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머지 배짱이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어엿한 한 농장의 사장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양돈인 영정양돈 이영정 사장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배짱이가 되기보다는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양돈 인이기를 바란다.

### 무뚝뚝하지만 돼지에 만큼은 부드러운 이영정 사장

영정양돈 이영정 사장(31세)은 지난 30여 년 전부터 부친 이치현씨(전 서울경기양돈조합장)가 경영해 오던 용암농장을 물려받아 92년부터 농장을 맡아서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 이 사장은 농장을 물려받은 후 농장명을 영정양돈으로 바꾸고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모돈을 늘린 결과 농장을 물려받을 당시 모돈 100두 정도이던 농장을 현재에는 모돈 200두 규모 농장으로 늘려 돼지 1마리당 순이익이 줄어드는 저마진 시대를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물론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나름대로 연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해결하는 등 잘 넘겨왔다고



▲내부 환경이 깨끗한 영정양돈 분만사 내부전경. 이 사장이 돼지들의 상태를 둘러보고 있다.

▶고르게 자라고 있는 자돈들이 어미 돼지로부터 젖을 빨고 있다.



한다. 특히 분만사와 육성돈사 등 새로운 돈사를 신축할 때에는 이 사장이 직접 챙기고 손수 일을 도맡아 하여 투자비도 상당히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이 사장은 지난 92년 중순 군대를 제대하고 양돈이 아닌 다른 길을 갈 것을 생각해 보았었지만 웬지 돼지가 좋았고 양돈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 24세의 어린 나이에 과감하게 양돈에 뛰어 들었다 한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돼지를 보고 자라면서 스스럼 없이 돼지에 대한 정을 키워 나간 것도 이 사장이 양돈에 뛰어든 계기이다.

물론 이 사장은 지난 92년 당시 부친의 농장을 곧바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



소박하게 웃고 있는 이영정 사장의 웃는 모습 속에서 평생 양돈인이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의 진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포천에 소재한 한 농장에서 실습을 거쳤으며, 여기서 이 사장은 인공수정, 모돈관리 뿐만 아니라 농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 100% 인공수정은 기본, 최신 사양 기법 도입

영정양돈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1리에 부지 2,700평, 건평 9개동 900여평 규모로 대부분 위치커텐을 이용한 개방형 돈사로 되어 있었으며, 정부정책자금 1억 1천만원을 들여 새로이 신축한 분만사는 창을 만들고 환기시설을 잘 설치하는 등 거의 무창돈사로 시설을 해놓았다.

농장시설은 대부분이 평사로 되어 있었는데 분뇨처리하는데 사람의 인력과 노동시간은 많이 들지만 돼지에게는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이 사장은 강조한다. 사양관리는 농장장 등 3명의 직원과 함께 이 사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일주일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간관리를 채택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분만은 돼지 스스로 분만하게끔 자연 분만을 하고 있었으며, 관리자는 기본적인 처

치만을 해주고 있었다. 물론 영정양돈의 PSY는 23두를 상회하고 있다. 여기서 이 사장은 자연분만이라고 해서 결코 사양성적이 뒤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돼지가 스스로 알아서 분만하게끔 잘 유도해 주고 그 후의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생산성적이 이렇게 좋은 것은 영정양돈의 모돈 산차구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정양돈의 모돈은 대부분 2~3산차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6~7산차의 모돈은 대부분 도태시킴으로 모돈사고에 의한 생산성적 하락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즉 영정양돈의 모돈 갱신은 전체 모돈 200두 중 매달 10두씩 5%에 해당하는 모돈이 도태되고 그만큼의 후보돈이 입식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정양돈은 3차에 걸친 100% 인공수정(후보돈은 1차 자연교배), 수태지 100% 거세, 빈틈없는 백신접종 등 완벽한 사양관리와 최신의 기술도입 등 최신 사양기법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수태율 또한 거의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모돈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이 사장은 모돈이 자돈을 분만한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모돈의 자궁 내부를 증류수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해 줌으로 자궁내막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유방염, 무유증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모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돈의 사료는 1일 3회를 급여하고 있으며, 물을 같이 섞어 주어 돼지가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주면 분만에 의해 상승한 모돈의 체열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유질에도 변화가 없

어서 포유자돈들이 잘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규모확대에 따른 발빠른 사양관리 못 미쳐 어려움 겪기도

이 사장은 짧은 기간동안에 모든 100두 규모의 농장을 모든 200두 규모로 늘리던 중 노산돈을 많이 도태시키고 후보돈을 계속 보충하였는데 후보돈의 중부적기를 잘 맞추지 못하여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이러한 경험부족에서 오는 실패로 인해 많은 낙심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 세밀히 돼지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이러한 사양관리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중부적기를 찾는데 도사(道士)가 다 되었다고 너털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한다.

**“오직 나의 갈 길은 양돈입니다”**

이 사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장을 성장

시키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생산비의 70%를 상회하고 있는 사료비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란면서 우선 사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단미사료를 자체 배합해서 돼지에 급여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결과 일반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것보다 약 1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었다. 물론 영양소 배합 등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이 방법이 좋은 것이란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한다.

또한 이 사장은 앞으로의 경영계획에 대해서 생산 뿐만 아니라 사료, 유통, 판매 등 계열화 사업을 하여 브랜드 돈육을 생산하는 것이 꿈이라며 큰 포부를 밝히기도 한다.

“오직 나의 갈 길은 양돈입니다” “항상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장의 포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날을 기대해 본다. **양돈**

(취재 : 이병석)

## 팩스 있으십니까?

###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